

기상사랑 12

2018. December

www.kma.go.kr Vol. 450

포커스

대한민국 기상산업의 미래가 한곳에!

해외동향

지구온난화로 '맥주' 품귀 사태

날씨 + Story

겨울의 특권, 스키장 100% 즐기기!



기상청

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보호

-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지급
-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신고

- 홈페이지 **1398.acrc.go.kr**
-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신고대상 : 6대 분야, 284개 법률 위반행위

건강



- 불량식품 제조·판매
- 무면허 의료행위

안전



- 부실시공
- 소방시설 미설치

환경



- 폐수 무단방류
- 폐기물 불법 매립

소비자이익



- 개인정보 무단 유출
- 허위·과장광고

공정경쟁



- 기업 간 담합
- 불법 하도급

기타 공공의 이익



- 거짓 채용광고
- 방위산업기술 불법사용



국민권익위원회

하늘사랑

2018 December Vol. 450 2018년 12월호(통권 450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60
팩스 (02)836-5472 E-mail kmanews@korea.kr 발행처 기상청
발행일자 2018년 12월 10일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79-06
발행인 김종석 편집장 김현경 편집기획 윤기한 최의수 조희애
디자인/인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MA Special Issue

포커스
대한민국 기상산업의 미래가 한곳에! · 02

해외동향
지구온난화로 '맥주' 품귀 사태 · 04
벼락 잡는 기상예보 모델 개발 · 05

KMA About

열린마당
사랑의 숫자 365, 36.5, 그리고 3.65 · 06
시(詩)와 살아가는 이야기 · 08
가을 바다가 품은, 강진 · 10
하늘을 담은 호수, 러시아 바이칼 · 12
건강한 내년을 위한 '즐거운' 다이어트 후기 · 14

KMA 날씨 +

날씨 + Story 겨울의 특권, 스키장 100% 즐기기! · 16
겨울과 찰떡궁합인 음식 · 18

날씨 + 영화 잃어버린 동심을 찾아줄 영화
<엘프> · 20

날씨 + Travel 체코·헝가리·오스트리아
어디까지 가봤니? · 22

날씨 + 에세이 이상한 날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 24

날씨 + 연애 유명하는 밤 · 26

KMA Report

포토 브리핑 · 28

독자 마당 · 30

포토 에세이 · 32



December



06



11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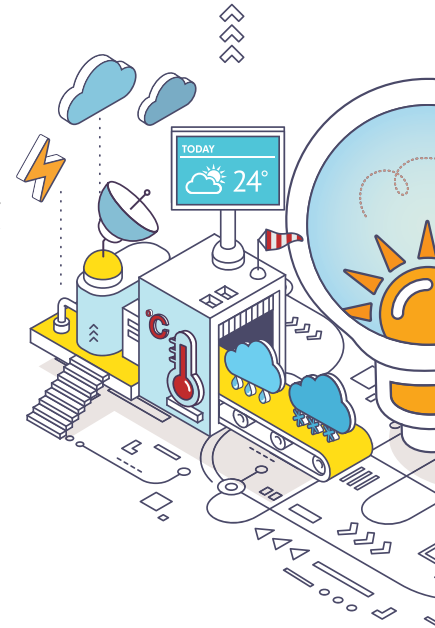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대한민국 기상산업의 미래가 한곳에!

2018 기상기후산업 박람회 개최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

2018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은 미래경제 글로벌 리스크의 가장 큰 요인으로 극심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실패 등을 꼽았다. 이러한 경제적 리스크 해소와 미래 신성장의 동력 방안으로 기상융합서비스 기반 기상산업이 주요 솔루션으로 부상했다. 기상청은 기상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11월 14일부터 3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2018 기상기후산업 박람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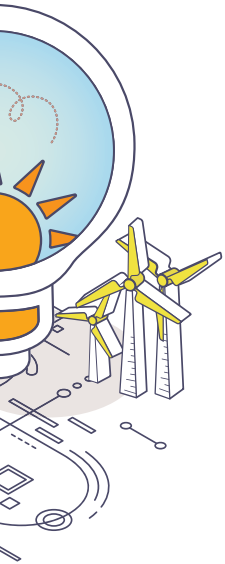


제3회 기상기후산업 박람회 개최

올해로 3회를 맞이한 '2018 기상기후산업 박람회'는 기상청이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기상기후 분야 박람회이다. 특히 올해는 '제4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와 공동 개최하여 규모와 전문성 측면에서 상승효과를 창출했다. 이번 박람회는 기상기업을 비롯한 관계기관 90개 사가 참여하여 최신 기상기술 동향 소개와 함께 기상기업 상품을 전시했고, 6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또한, '기상산업 맞춤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공공 수요처' 관계자와 기상사업자 간 1:1 매칭으로 100억 원의 계약 상담이 이루어지는 성과도 있었다.

최신 기상기술 동향을 알 수 있는 '기업전시관'

기업 전시관에는 자동기상관측장비(AWS), 부이, 기상관측용 드론 등 각종 기상관측장비를 비롯하여 기상 응용 소프트웨어, 기상 관련 최신 연구 결과들이 전시되었다. 현재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에 입주해있는 한 기상기업은 자체개발한 국내 최초의 '다중데이터를 활용한 고신뢰성 낙뢰경보시스템'을 전시·홍보했다. 또 다른 기상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달청-기상청 협약에 의한 '공공혁신조달 연계 소형무인기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상관측용 드론'의 성능 시연회로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밖에도, 예비 창업팀의 스마트 팜 기술, 블록체인의 날씨정보 공유 플랫폼, 기상 선두기업의 인공지능 시정계 등이 전시되었으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중량식 쌍수조 우량계 개발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전시가 이루어져 최신 기상 기술 전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기상정보의 가치와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알린 '기상기후 체험·전시관 및 정책홍보관'

이번 박람회는 기상캐스터 체험, 찾아가는 날씨체험캠프, 교육코미디 기후극 등 국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특히,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공연한 교육코미디 기후극은 국민들에게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그밖에도 지구ON 상영관, 기상기후 사진전 및 웹툰, 곧 발사될 예정인 천리안-2A호 위성 모델 등의 전시도 펼쳐졌다. 정책홍보관에서는 기상데이터 활용,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날씨경영 등 기상가치 확산을 위한 기상청 정책을 소개했다. 국가기후데이터센터는 기상자료 활용 확산을 위한 기상자료개방포털 사용 방법을 소개했고, 기후과학국과 국립기상과학원에서는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현장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진행했다.

기상기술 세미나, 시상식 및 수여식 개최

이번 박람회는 '날씨경영 지식포럼', '기상기후 분야 수출 및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세미나', '기상R&D 혁신기술 세미나', '기상가뭄예보 설명회' 등이 개최된 기상기후 정보 교류의 장이기도 했다. 기상정보 활용, 기상산업 진흥, 아이디어 제안에서 탁월한 성과를 나타낸 15개의 기업 및 기관에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을 시상했고, 기상정보를 기업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우수기업 26개 사에 대한 날씨경영 우수기업 선정서 수여식도 거행됐다.

기상기후산업 박람회는 회를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러한 성장에 발맞춰 기상기후산업 박람회 규모가 더 많은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국내 기상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명실공히 최고의 박람회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쓸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맥주' 품귀 사태

맥주는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알코올 음료다. 그런데 맥주가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심한 공급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가 발표됐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과 열파가 세계의 보리 수확량을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보리 수확량 줄어 맥주값 최대 두 배 오를 것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대(UEA)가 주도한 국제 협동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보리 공급은 기후가 극한으로 변화한 최근 수년 동안 점차 감소해왔다. 특히 벨기에와 체코,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은 평균 최대 공급량 감소가 27~38%에 이르러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소비 감소로 이어져 전 세계적으로 약 16%, 290억 리터가 줄어들고, 맥주값은 평균 두 배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식단 안전'도 '식량 안전' 못지않게 중요

이번 연구를 이끈 UEA 국제 개발대의 기후변화경제학과 다보 구안(Dabo Guan) 교수는 "연구자들이 기후변화가 와인이나 커피 같은 고급 작물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는 했으나 맥주에 대한 영향은 주의 깊게 평가된 적이 없다"며 "충분한 맥주 공급은 사회의 커뮤니케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안전성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변화가 맥주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생명을 위협하는 다른 많은 것에 비해 그리 대단하지 않게 보일 수 있으나, 맥주에 대한 여러 문화 전반의 평가를 보면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피력했다.

맥주 좋아하는 나라에서 가격 가장 많이 오를 듯

이번 국제 연구에는 영국과 중국, 멕시코, 미국의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극심한 기후변화를 확인하고 이 기후변화 영향이 세계 34개 지역의 보리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했다. 연구팀은 각 지방의 특성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보리 공급량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리를 가축 사료나 맥주 원료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각 지역별 가격과 수요 유연성에 달려있다는 의견이다. 최근 수년 동안 전 세계 보리 생산량 가운데 약 17%가 맥주 제조에 사용됐다. 그러나 이 비율은 나라에 따라 크게 다르다. 브라질은 83%인데 비해 호주는 9% 정도가 맥주 제조에 쓰였다. 현재 맥주값이 가장 비싼 국가, 예를 들면 호주와 일본은 미래의 맥주 가격 쇼크가 가장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참고 : 사이언스타임즈



벼락 잡는 기상예보 모델 개발

기상기술의 발달로 폭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가 가능해졌지만, 벼락(lightning)은 아직도 예측이 어려운 약천후 분야다. 그런데 최근 과학자들에 의해 이 벼락 예측이 가능해지고 있다. 지난 9월 6일, '사이언스'지에 따르면, 영국 기상청(Met Office)은 언제 어디서 벼락이 발생할 것인지 사전 예측이 가능한 전 지구 차원의 시뮬레이션을 만들었다.

벼락 예측 가능성 높아져

벼락을 일으키는 뇌운 속에는 많은 수분과 얼음 입자가 들어 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음전기와 양전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꽃 현상을 번개라고 한다. 기상학자들을 괴롭힌 것은 뇌운의 형성 과정이다. 현재 기상청을 통해 운용되고 있는 수치형 일기예보 모델은 수치상으로 잘게 쪼갠 입방체, 즉 격자박스(grid box) 형태로 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가상의 박스 속에 들어있는 대기(atmosphere)를 지속적으로 관찰, 분석하면서 일기 상황을 파악, 예측한다. 그런데 그동안 운용하던 일기예보 모델은 이 격자박스의 거리가 100km를 넘었다. 격자가 촘촘해야 예보 정확도도 높아지는데, 지금의 수치 모델로는 작은 얼음 결정체들의 뇌운 형성과정을 감지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런 수치 모델의 단점을 해결한 사람이 영국 기상청의 기후과학자인 폴 필드(Paul Field) 박사 연구팀이다. 연구팀은 기존 격자박스의 10분의 1 수준인 10km 영역(격자박스) 내에서 얼음결정체들이 뇌운을 형성하는 과정을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벼락 위험 없는 신항로 개척 예고

필드 박사 연구팀은 기존의 수치 예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측 영역을 대폭 세분화하면서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1제곱킬로미터 당 매년 약 100번 발생하고 있는 벼락을 모두 예측했다. 이 새로운 예보 모델 덕분에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도 밝혀지고 있다. 필드 박사는 “오후 3시를 전후해 많은 벼락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시간대에 지온이 가장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때 수증기와 함께 위로 상승한 따뜻한 공기가 얼음 입자들을 형성하고 벼락을 일으키는 뇌운으로 변한다”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의 경우는 육지보다 훨씬 늦게 벼락이 친다. 호숫물이 데워지는 속도가 육지보다 느리기 때문이다.

벼락 예측 모델로 가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곳은 항공 분야다. 필드 박사는 “이 모델을 활용해 항로에 있어 위험 지역을 파악할 수 있으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과학자들이 큰 기대감을 표명하는 가운데 영국 리즈 대학의 대기과학자 데칼린 피니(Decaln Finney) 교수는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새로운 기후변화 예측이 가능하니 놀랍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관련 논문은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지구물리학연구학회지(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최근호에 게재됐다.

참고 : 사이언스타임즈



사랑의 숫자

365, 36.5, 그리고 3.65

11월 10일 아침, 하계역에서 택시를 타고 백사마을로 향했습니다. 백사마을을 찾은 지 올해로 3년입니다. 첫 시작은 2016년 겨울, 기상청 봉사 동호회인 단비회에서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정석권
운영지원과

수채화 풍경 같은 백사마을

백사마을이라는 이름은 주소가 서울시 중계동 104번지인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언덕길에 늘어선 슬래브 지붕들이 아련한 수채화 풍경 같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현대의 서울과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왠지 슬프기도 했습니다.

오전 10시경 우리가 배달할 연탄이 쌓여 있는 연탄은행 창고 앞에 모였습니다. 남재철 전 기상청장님을 비롯하여 김금란 단비회 회장님, 그리고 퇴직하신 선배님들과 직원 가족들까지, 모두 스물한 명이 참여했습니다.

연탄은행 간사님으로부터 이날 할 일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들은 후 조끼와 팔 토시를 갖춰 입고 지게를 등에 댔습니다. 효율적인 배달을 위해 일부는 연탄을 지게에 실어주는 역할을, 또 일부는 연탄을 각 가정의 적재 장소에 쌓는 일을 맡았습니다.

언덕길을 올라 굵이굵이

이날은 우리가 기부한 총 5,000장의 연탄 중 1,000장을 한 가구당 100장씩 10가구에 배달하기로 했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 그리 간단한 일만은 아닙니다. 공장에서 갓 나온 연탄 한 장의 무게는 3.65kg이나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게를 짊어지고 언덕길을 올라 굵이굵이 골목을 돌며 날라야 하는 연탄의 총 무게가 3,650kg인 것입니다.





한번에 6장씩 또는 4장씩 지게에 지고 계속해서 비탈길을 오르내리면 어느새 등과 허리에 땀이 나고 숨이 가빠집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 하나 피를 부리거나 쉬지 않고 열심히 연탄을 날랐습니다. 오가며 서로 마주칠 때면 힘내라고 격려하고 웃어 주면서 말이죠.

그렇게 2시간여가 지나자, 마지막 집 30장만 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집은 연탄 창고에서 30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어서 다 같이 줄지어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날랐습니다. 마지막 열 장은 하나에서 열까지 수를 세면서,

3.65kg의 무게를 감당하는 삶

배달이 끝난 후, 한자리에 모여 파이팅을 외치는 사진 한 컷을 남기는 것으로 봉사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날 배달이 끝났다고 해서 연탄 배달 봉사활동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한 가구에서 하루에 사용하는 연탄은 3~4장, 그러니까 100장이라고 해야야 한 달도 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백사마을엔 더 많은 가구가 있습니다. 모든 주민이 긴 겨울을 따뜻하게 나려면 더 많은 봉사자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을 이야기하고 노래하지만, 사실 일상에서 사랑을 나누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365일 36.5도의 체온을 담아 적어도 3.65kg의 무게를 감당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해봅니다.

마음속 연탄 한 장

때때로 예보가 틀렸다고 비판과 질책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기상청만큼 국민과 항상 함께 하는 곳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부심을 갖고 국민들에게 더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365일 과학자의 냉철함과 36.5도의 따뜻한 마음으로 국민께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3.65kg의 연탄 한 장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연탄만이 아니라 마음의 연탄을 말입니다. 너와 내가, 그리고 우리 기상청이 이런 따뜻한 연탄 한 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짧지만 따끔한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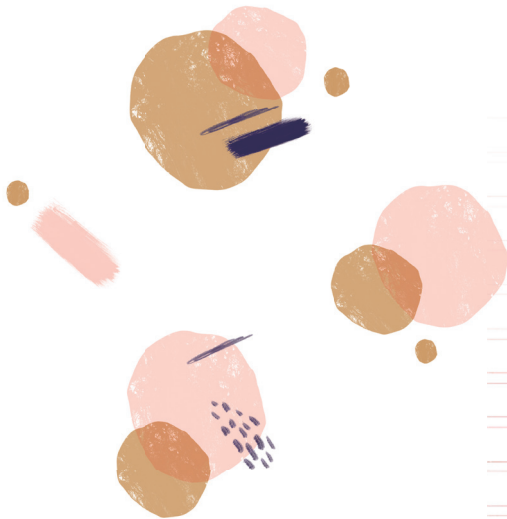
— 안도현, 『외롭고 높고 쓸쓸한』, 문학동네, 2018 —



시(詩)와 살아가는 이야기

시 한 편이 이혼의 위기에 선 부부의 마음을 되돌리기도 하고 절망에 빠져 삶을 포기하려던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걸 보면, 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한 편의 시 속에서 시를 쓴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한 관점과 철학, 그리고 세상을 향한 외침을 만날 수 있다.

누군가는 눈 앞에 펼쳐진 절경을 봤을 때나 고매한 사상 또는 철학 접했을 때, 또는 사람이나 사물과 특별한 만남을 겪었을 때 그 소회를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적고 싶어 한다. 사실 우리는 모두 시인이다. 형식에 매인 시를 쓰지 않을 뿐이지 모두가 시인인 것이다. 정의한다면, 시는 가슴에서 우러나는 것들의 자기표현이라고 말하고 싶다. 시를 가까이 하다보면 사람이나 사물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넓어져 사람들과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가끔 멍하게 있는 것조차도 시를 위한 서곡이 된다. 필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지금처럼 글 쓰는 일에서 손을 떼지 않고 정진해나간다면, 내게도 절창의 시가 오지 않으란 법은 없을 것이다. 지면에 실기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간 지은 짧은 시와 함께 작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배종문
항공기상청 제주공항기상대

선물

그 작은 꽃
쉽사리
꺾지 마라

그 평생에
한 번 피운
꽃이다

그냥 보아도
선물이다



요즘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가끔 들이나 산에 핀 꽃이 나 나뭇가지를 무심코 꺾는 경우가 있다. 풀이나 나무가 꽃을 내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냈을까 생각한다면 결코 하지 못할 행위이다. 대다수의 식물이 한해살이 식물이다. 단 한번의 절정을 향한 그들의 달음박질을 상상해보면 무언의 몽클한 감정이 올라오음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이 노력으로 이룬 결과물을 보고 즐기는 것만으로도 큰 선물을 받고 있지만, 정작 그것이 선물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친구야

니 맛도 내 맛도 아닌
 서글픈 이 세상에
 친구야, 친구야,
 소금 한 줌 뿌리며 살자

간썩이 손에 잡힌
 툭툭 불거진 왕소금을
 고등어 빈 속 같은
 비릿한 이 세상에
 친구야, 친구야,
 소금 한 줌 뿌리며 살자



위 시에서 '니 맛도 내 맛도 아니'라고 한 것과 '비릿한 세상'이라고 읊은 것이 우리가 목도하는 세상의 실상이기도 하다. 빈부 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돈과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여 팍팍해지는 인심 앞에서 어떤 철학과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정답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은 각자의 몫이리라.

그대 뜨락에

그대 뜨락에 들꽃 한 포기 심으소서
 훽한 바람 부는 세상의 시간에서 돌아오면
 쪼그려 앉아 보고 싶은 그런 꽃을

몸은 현재에 살고 마음은 미래에 두는 것
 하여 그대 마른 손등에 물기 반짝이더라도
 잔잔한 위로 피워 그대에게 선사하는
 착한 들꽃 몇 포기를



문득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진 듯한 때가 있다.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막상 만날 사람이 없을 때도 있다. 그럴 때 나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공간이나 대상이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무엇보다도 마음의 뜨락에 들꽃 몇 송이를 피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이가 또 있을까 싶다.

이상으로 세 편의 짧은 시와 함께 소견을 적어보았다. 일기를 쓰거나 감회를 적은 글은 스스로 작은 위안이 되고 내 편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몰래 숨어서 응원해 주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만약 어릴 적에 적은 일기장을 보는 묘한 기분을 느껴보고 싶다면 지금부터 내 마음이 담긴 글을 써보는 건 어떨까.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당신은 오래전부터 이미 시인이고 작가이니깐. 📖

詩人 배중문

- 2011년 서정문학 '토란'으로 신인문학상(등단)
- 현재 '서정문학 작가회의' 소속
- 각종 일간지, 문학지 등 기고 활동 중



가을 바다가 품은, 강진

기상청 일이 워낙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 주말에 나들이를 다녀온 게 언제인지 까마득할 정도다. 그러던 중 최근 우연히 강진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다. 작년에는 벚꽃이 한창인 봄에 방문해서 화사하고 생동감 넘치는 강진을 봤는데, 올해 11월에 다시 찾은 강진은 고요하고 잠잠해 보였다.

가을 감성에 젖은 강진

강진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넓게 펼쳐진 강진만의 고즈넉한 갯벌이었다. 망망대해의 바닷물이 반짝이고 있어 물이 많이 들어왔나 보다 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물이 빠져나간 맨땅이 햇볕에 반사된 착시 현상이었다. 눈부신 갯벌과 그 너머의 바다를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괜스레 시원했다.

첫째 날의 일정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어느덧 해는 서산을 넘어가 붉은색으로 바뀌어 있었다. 갯벌 끝자락에 맞닿은 산과 그 위로 펼쳐진 붉은 노을은 그 누구의 메마른 가슴도 감성으로 가득 채울 만큼 신비로웠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은 때로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것 같다.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 하나는 식도락이 아닐까 싶다. 마침 숙소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었는데, 주인장이 직접 고기잡이를 해 신선한 회와 해산물을 먹을 수 있었다. 주로 낙지, 전어 등이 많이 잡히지만 요즘에는 낙지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했다. 현지에서 직접 파는 낙지를 사고 싶었는데 한 마리당 5,000원이 넘어가는 가격을 보고 포기했다.

출렁다리의 비밀

둘째 날, 숙소가 가우도 출렁다리 부근에 있어서 아침 일찍 구경을 다녀왔다. 가우도는 강진군 도암면 망호(望湖)에 속한 강진만의 8개 섬 가운데 유일한 유인도이다. 강진을 보은산이 소의 머리에 해당되고 섬의 생김새는 소의 멍에와 닮았다고 하여 '가우도(駕牛島)'라고 불린다. 출렁다리는 가우도와 육지를 잇는 다리로, 섬 양쪽과 연결되어 있으며 저두출렁다리와 망호출렁다리 두 개가 있다. 출렁다리를 처음 본 사람은 이름 때문에 다리가 많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예상과 달리 튼튼한 다리이다. 다리 아래로 흐르는 바닷물이 출렁거리 '출렁다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섬에는 약 2.5km의 생태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갑판을 따라 쪽 걸어가면 해변을 둘러볼 수 있다. 섬 정상에는 청자 모양의 타워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스릴 만점의 징트랙도 즐길 수 있다. 출렁다리는 밤에 보아야 더 예쁘고 화려하다는데 야경을 놓쳐 아쉽다.



송효실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강진 석양



생태공원 갈대밭



싱싱한 관어회



탱글탱글 소라회

하얀 갈대가 춤추는 곳

오후에는 일정을 마치고 갈대가 유명한 강진만 생태공원을 방문했다. 갈대 축제 기간은 끝났지만 하얗게 꽃을 피운 갈대는 아직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반겨줬다. 강진만 생태공원은 2.5km에 이르는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어 갈대와 갯벌 사이를 거닐며 산책할 수 있다. 갯벌에서는 짱뚱어, 망둥어, 게 등이 기어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겨울철에는 큰고니, 도요새, 오리도 볼 수 있다고 한다. 갈대밭 한 쪽에 조성된 코스모스 군락지와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국화꽃, 핑크몰리는 또 다른 다양한 볼거리가 되어주어 즐거웠다. 보통 갈대밭은 가을에 보는 게 가장 멋지지만 6~7월 사이 푸른 갈대 사이로 해가 떠오르는 광경도 일품이라고 한다.

그동안 강진에 몇 차례 와봤지만, 이번에 만난 강진은 가을에 더없이 잘 어울리는 경관을 품고 있어서 매우 좋았다. 다음에 한 번 더 강진을 만나러 오리라 다짐하면서 아쉬운 발길을 돌렸다. 📷

하늘을 담은 호수, 러시아 바이칼

삶은 가끔 혹은 자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색깔을 바꾸곤 한다. 요즘 말로 ‘소확행’이다. 지금 확실한 행복을 위해 나는 잠시 동안 한국을 벗어나기로 했다. 위도가 높아서 시원한 곳.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비행 경비가 저렴한 곳. 비자도 필요 없어 복잡하지 않은 곳. 바로 러시아다.



울란우데, 드디어 러시아?!

러시아를 구글 지도로 보면 맨 처음 시선이 향하는 곳이 있다. 마치 누가 손톱으로 눌러 놓은 것 같은 모양의 세계 최대 담수호 ‘바이칼 호수’다. 길이는 대략 삼천리 화령강산의 한반도와 비슷하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이칼 호수의 울훈 섬. 중간 기점은 울란우데와 이르쿠츠크였다.

울란우데에 거주하는 러시아 사람들은 숫자 ‘1’도 영어로 말할 줄 모른다. ‘1’을 one이라고 하지 못하니 의사소통 불가. 그래서 스마트폰 개통이 필수다. 현지인에게 어설픈 가르침을 받으면 빗속에서 정처 없이 길을 헤맬 수 있다.

울란우데에서는 러시아어로 대화하는 것만 빼면 별 위화감 없이 사람들 틈에 섞일 수 있다. 생김새가 우리와 꽤 닮았기 때문인데, 알고 보니 이곳이 러시아로 편입되기 전까지 줄곧 몽골의 영토였다고 한다. 게다가 한국 버스도 다닌다. 신림행 버스인데, 우리나라에서 폐차시킨 버스를 페인트칠도 안 하고 그대로 쓰는 것 같았다.



시베리아 횡단열차, 이르쿠츠크

울란우데 공항을 중간 기점으로 정한 건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기 위해서였다. 러시아 여행이라고 하면 배낭을 메고 횡단열차에 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은가.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객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상상을 하며 기차 3등석 칸에 올라탔다. 으음…… 돌아올 땐 그냥 2등석을 탔다. 추억과 기억은 대부분 아름다운 자기 각색인 것 같다.

이르쿠츠크에 도착하면 비로소 러시아 풍경에 흠뻑 빠질 수 있다. 사람, 건물, 거리의 풍경 곳곳에 이 도시만의 정체성이 스며들어 있다. 스마트폰이 없어도 길을 잃을 염려는 없다. 바닥의 초록색 선이 도시의 주요 관광지로 안내해주기 때문이다.

이르쿠츠크를 느끼고 싶다면 볼콘스키 대공의 집으로 가면 된다. 러시아 문화들의 소설 속 배경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장소는 삶에 가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곳을 직접 방문한다면 러시아 문학을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정현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



세계 최대의 담수호, 바이칼 호수

바이칼 호수가 있는 올혼 섬은 매일 이르쿠츠크 시장에서 미니밴을 타고 출발할 수 있다. 처음에는 나와 친구만이 미니밴 안에 있었지만, 이르쿠츠크에서 한 명이 더 합승해 셋이 되었고, 시장에선 넷이 되었다. 그리고 출발하기 직전, 올혼 섬으로 가는 밴을 애타게 찾고 있는 열혈 배낭여행객 청년까지 다섯이 되었다. 그야말로 천군만마다.

알혼 섬 가는 길은 정말 험하다. 게다가 배까지 타고 들어가야 하니 말 그대로 자연인 곳이다. 도로에는 러시아 소가 사람과 같이 배회한다. 만지려고 손을 뻗으면 자연스레 받아들인다.

숙소에서 짐을 풀 뒤(섬에 오기 전에 예약해야 한다. 빈방이 없다.) 올혼 섬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한국 후발대 일행 넷과 합세하여 가이드를 따라나섰다. 일행이 아홉으로 늘어나니 아홉배 더 즐겁다. 결국은 여행도 사람인가 보다. 무더운 여름, 바이칼 호수에 서서 시원한 바람을 맞고 있으니 이것이 소확행이구나 싶다. 여기에 끝내주게 아름다운 절경은 덤.

타인의 발견. 너의 의미는 그 너머

여행. 그것은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사람들을 선사하고, 익숙한 것과 익숙한 사람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여행의 끝은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 품에 무사히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여행을 떠나는 것도,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모두 행복이겠지. 📖



알혼섬 선착장



횡단열차

건강한 내년을 위한 '즐거운' 다이어트 후기

연말 모임이 많은 12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지만, 칼로리 높은 음식과 술잔을 앞두고 몸무게 생각이 날 법도 한데요, 요즘 부쩍 입맛이 좋아져 걱정되거나 새해 목표가 다이어트이신 분들을 위해 제가 8개월간 20kg을 감량하고 유지하면서 느꼈던 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조경수
예보국 예보기술과



살찌는 건 참 쉬었습니다

2015년 10월, 제주도로 발령을 받아 제 인생의 첫 자취가 시작했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한다는 핑계로 불규칙한 식사와 폭식을 일삼았고, 운동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니까 파전에 막걸리, 축구 경기하니까 치맥, 저기압일 땐 고기 앞'과 같은 그럴듯한 이유로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결과, 16년 말엔 몸무게가 92kg까지 늘었습니다.



첫 번째 체중감량

다이어트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처럼, 체중 감량을 하는 데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조절이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17년 1월부터 출근 전에는 헬스장에서 스트레칭과 유산소운동을, 퇴근 후에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거르거나 간단하게 바나나 또는 견과류를 먹었고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먹되, 양을 적게 먹었습니다. 업무 중 간식의 유혹도 떨어졌고, 저녁은 닭가슴살과 양상추를 먹으면서 7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패턴으로 한 달을 유지하니 규칙적인 수면과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습관이 만들어졌고, 10kg을 감량하였습니다.



길고 긴 정체기

한 달 만에 감량한 10kg의 영향은 정말 컸습니다. 체력도 좋아졌고, 평소 입던 옷들이 넉넉해졌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체중을 더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5개월 동안 긴 정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보다 운동 강도를 늘렸지만 인바디 측정 결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식단조절에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전처럼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식욕을 참는' 방법은 오래 지속할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대신 꾸준히 운동으로 과도한 식욕을 줄이고 체력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2016년 11월의 나



2017년 8월 25일 20kg 감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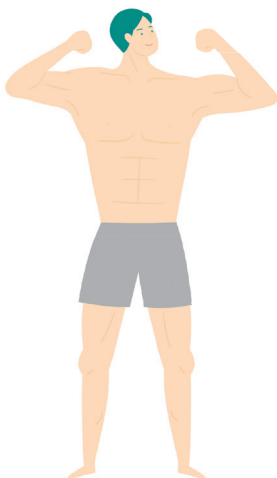


2017년 10월의 나



꾸준한 러닝과 두 번째 체중 감량

정체기 동안 가장 많이 했던 운동은 오래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이어트에는 근력 운동이 중요하단 것을 알지만, 체계적인 근력 운동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반면에 바다가 보이는 러닝머신 위에서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달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8km/h의 속도로 10분씩 달리기 시작하여 꾸준히 연습하니, 매일 10km/h로 30분씩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에는 처음으로 10km 마라톤에 참가해서 50분 후반대의 기록을 얻었습니다. 우수한 기록은 아니지만 자기관리에 있어 예전보다 좋은 방향으로 많이 변했음을 느꼈고, 이때 얻은 경험으로 최근까지 10km 마라톤에 나가 기록을 조금씩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후 7월부터 다시 한 달간 식단조절을 하였고, 큰 어려움 없이 10kg을 감량하였습니다.



건강한 2019년을 위하여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낀 중요한 점은 '자신의 신체를 파악하고, 본인에게 맞는 즐거운 다이어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말 중요한 근력 운동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식단 조절과 운동을 하지 못해 스스로 반성하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즐겁게 운동하고 관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잘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다이어트는 쉽지 않겠지만, 모두 멋진 몸매와 함께하는 건강한 2019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겨울의 특권, 스키장 100% 즐기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엔 폭염, 겨울엔 한파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올겨울은 또 얼마나 추울지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두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겨울이 마냥 꺼려지지만은 않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스키'입니다. 새하얀 스키장에서 연인, 친구,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다 보면 추위도 잊게 되지 않을까요?



어떤 눈이 스키 타기 좋을까?

이른 곳은 11월부터 개장하여 스키와 스노우 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첫눈이 오기 전부터 스키장이 개장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인공 눈 덕분입니다. 인공 눈은 제설기를 이용하여 급속냉동으로 생성되는데, 빙정핵이 낙하하며 형성되는 자연 눈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둘의 결정 구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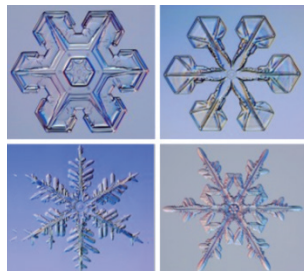
자연 눈은 구조 형성 시 온도와 습도 등에 따라 제각각 모양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잔가지가 많은 육각형의 결정 구조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결정 구조 사이사이에 빈틈이 많고, 밟으면 빈 공간이 채워지며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반면 인공 눈은 급속냉동으로 밀도가 높은 결정이 형성되기 때문에 구조에 빈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연 눈보다 마찰력이 큼니다. 그렇다면 마찰력이 작은 자연 눈과 마찰력이 큰 인공 눈 중에 어떤 눈이 스키 타기에 좋은 눈일까요? 일반적으로 마찰력이 적으면 좋다고 생각해 자연 눈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답은 인공 눈입니다. 스키가 미끄러지는 원리는 눈과의 마찰보다 눈에 가해지는 압력에 의해 녹는점이 증가하면서 생성된 물이 윤활 역할을 하여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인공 눈은 마찰력이 크기 때문에 마찰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 마찰열이 눈을 잘 녹여 스키가 더 잘 미끄러질 수 있게 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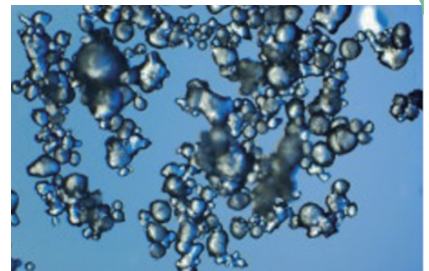
김상현
기상청 10기 블로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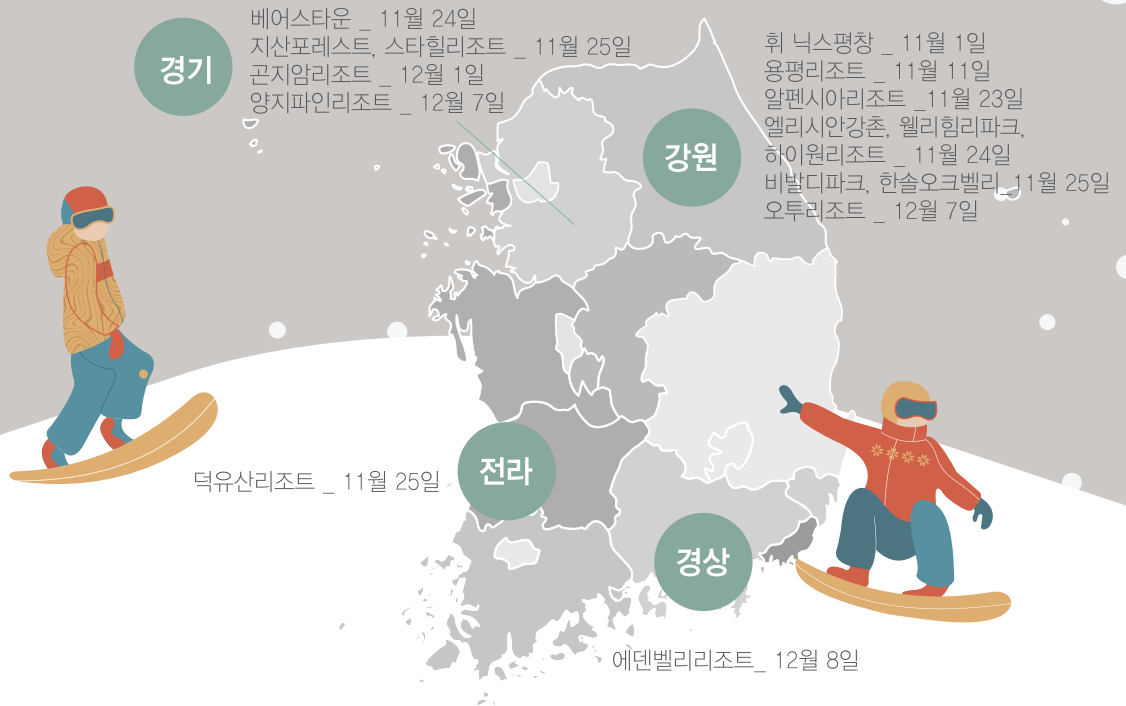
자연눈



인공눈



전국 스키장 개장일



스키장 준비물 및 주의사항

스키장에 가고 싶은데 장비를 구매하려니 너무 비싸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비, 헬멧, 스키장갑, 보호대, 고글 등의 기능성 제품들은 대부분의 스키장에서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대와 스포츠 양말의 경우 땀에 젖어있을 수 있어 개인적으로 구매하셔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양말입니다. 스키나 보드를 탈 때는 부츠를 신는데, 부츠 안쪽의 살이 쓸릴 수 있기 때문에 긴 양말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털이 복슬복슬한 수면양말은 부츠 안에서 미끄러지고 말려 내려오기 때문에 반드시 스포츠용 긴 양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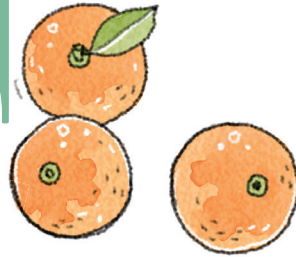
스키와 스노우 보딩이 겨울 스포츠인 만큼 방한 용품도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장갑은 눈이 녹아 스며들 수 없는 방수장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갑도 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칼바람을 막아줄 스키 반다나나 넥워머 등을 준비해 얼굴과 목을 꼼꼼히 싸매는 게 좋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헬멧과 고글도 꼭 준비하시거나 대여하셔야 하는데요, 간혹 고글 대신 선글라스를 착용하려는 분이 계십니다. 고글보다 내구도가 낮은 선글라스는 파편이 튀어 더욱 크게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글을 착용하셔야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18-19시즌 스키장 개장일과 스키에 적합한 눈, 준비물과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레포츠 즐기시기 바랍니다! ❄️



겨울과 찰떡궁합인 음식

날씨가 추워지니 이불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지는데요. 사실 집 밖에는 맛있는 겨울 제철 음식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겨울에 먹으면 더 좋은 음식,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겨울의 필수 과일, 귤!

여러분들은 '겨울'하면 어떤 과일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제일 먼저 귤이 생각나는데요! 귤은 겨울의 대표과일입니다. 귤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귤은 하루에 2개 정도만 먹어도 성인 하루 비타민C 섭취를 모두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특히 귤의 속껍질은 식물성 섬유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고 속껍질에 붙은 하얀 줄기는 비타민 B1, C 등이 풍부해 같이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각종 바이러스 예방에 도움이 되지요. 영양소가 풍부하고 맛있기도 한 귤! 귤을 많이 먹으면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영양 폭발! 굴

겨울에 많이 드시는 음식이 또 있죠! 바로 굴입니다.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은 겨울에 특히 맛있는 겨울 제철 음식입니다. 굴에는 멜라닌 색소를 제거하여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은 분께 희소식이 되겠네요. 또한 굴은 100g당 97kcal 정도로 열량이 적고 지방 함유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겨울철 굴국은 질 좋은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다이어트 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공급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정윤정

기상청 10기 블로그 기자



겨울에 먹으면 좋은 음식

다음에 소개할 겨울 음식은 바로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음식으로 비타민 A(카로틴)가 풍부하여 감기나 폐렴과 같은 감염증 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단호박에 있는 항산화 성분은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체온 유지를 도와줍니다. 추운 겨울날 뜨거운 단호박죽을 호호 불어가며 먹는 것은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정취이기도 하죠.



썩 또한 겨울철 좋은 음식으로 빠져서는 안 될 주인공입니다. 썩은 혈액순환을 돕고 몸에 따뜻한 온기를 넣어주는 식재료인데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피로 회복과 체력 개선에 좋습니다. 어느 겨울 날, 추위로 지친 내 몸을 썩떡이나 썩 해독 음료로 달래 보는 건 어떨까요.

겨울에는 체온이 떨어져 면역력이 30% 정도 감소된다고 합니다. 가벼운 운동과 영양분 섭취, 충분한 휴식, 따뜻한 차 우려 마시기 등 면역력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데요. 앞으로 맛있는 음식 많이 챙겨 드시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



잃어버린 동심을 찾아줄 영화 <엘프>

어린이들에겐 연중 빅 이벤트가 세 개 있다. 어린이 날, 자기 생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나 역시 그랬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받고 싶어 그제야 착한 일을 몰아쳐 해치우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산타의 방문을 기다리지 않는다. 언제부터였을까? 나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조희애
대변인실



요정마을에 굴러들어온 아기

영화 <엘프>는 동심을 잃어버린 어른들을 위한 동화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어느 고아원. 선물을 주러 온 산타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한 아기가 산타의 선물 보따리 속 장난감에 홀려 엉금엉금 기어 들어간다. 그대로 북극의 요정마을로 들어온 아기. 아기를 발견한 산타와 요정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 노총각 '파파엘프'에게 입양시키기로 한다. 그렇게 요정마을의 일원으로 살게 된 '버디'. 버디는 무럭무럭 성장해 서른 살이 된다. 키가 60cm인 요정들의 세계에 적응해 살아가는 모습은 관객의 웃음을 자아낼 만하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요정들처럼 산타를 도와 크리스마스 장난감을 제작하던 버디는 우연히 자신이 인간이라는 진실을 알게 된다. 게다가 친아빠는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쁜 어른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나쁜 어른! 버디는 파파엘프의 도움을 받아 미국 뉴욕에 있다는 아빠를 만나러 떠난다.

아빠 찾아 삼만리

파파엘프에게 받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스노우볼을 지도 삼아 뉴욕에 도착한 버디. 노란색 타이즈와 초록색 요정 복장을 빼입은 그는 무채색의 인파 속에서 신나게 거리를 누빈다. 길에 붙은 껌을 주워 맛있게 먹고, 호텔 입구 회전문을 빙글빙글 내달린다. 어린이처럼 해맑은 그의 행동들은 코미디의 재미와 순수한 감동을 느끼게 해준다. 참고로 당시 버디를 연기한 월 퍼렐의 나이는 무려 30대 후반. 처음에는 그의 노안 때문에 캐릭터 몰입이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훌륭한 연기력 덕분에 '사랑스러운 버디'로 바라볼 수 있었다.




드디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도착해 아빠를 만난 버디. 그러나 아빠는 동화책의 가치는 잊은 채 돈에 눈이 먼 악덕 출판사 간부였다. 버디는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며 반갑게 달려들지만 그는 버디를 '덜 떨어진 놈' 정도로 생각하며 내쫓아버린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나온 버디. 그는 눈앞에 보이는 백화점으로 들어가는데 그의 요정 복장을 본 백화점 매니저가 직원으로 착각해 이것저것 일을 시키기 시작한다. 덕분에 버디는 백화점에서 일을 하며 아빠를 만나기 위해 틈틈이 건너편 빌딩을 습격한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버디의 끈질긴 치근덕거림에 질린 아빠는 그와 함께 DNA 검사를 받는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뭐? 내 아들이 맞단다. 어쩔 수 없이 아빠는 버디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그의 순수한 기행이 마침내 아빠와 아빠의 현 아내, 그리고 이복 동생의 마음에 스며들며 관계에 온기가 감돌기 시작한다.

그렇게 맞이한 크리스마스이브. 선물을 가득 실은 산타가 순록 썰매를 이끌고 뉴욕 상공을 날아가다 센트럴 파크 공원에 추락하고 만다. 산타 썰매가 연료로 삼는 '사람들의 크리스마스 정신'이 부족했기 때문. 썰매가 다시 뜨지 못하면 오늘 밤에 전달해야 할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선물도 없다. 게다가 공원 저쪽에서는 거칠게 제압하기로 소문난 경비대가 산타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달려오고 있는데……. 과연 버디는 이 삭막한 뉴욕 맨해튼에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엘프〉는 2004년에 개봉한 오래된 영화이지만 이 영화가 가진 힘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바쁜 일상으로 가족의 의미를 잃어버린 현대인에게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 산타의 정체가 부모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 나는 크리스마스를 도둑맞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던 것 같다. 어른이 된 우리들을 위해 산타가 준비한 선물은 장난감 대신 가족이었던 게 아닐까. 어쨌든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다! 

체코·헝가리·오스트리아 어디까지 가봤니?

우연히 유럽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다. 나의 두 번째 유럽여행인 셈이었다. 방문지는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뜻밖의 유럽여행에 너무나도 즐겁고 신나게 짐을 썼다. 10시간 정도 되는 비행시간 동안 걱정 반 기대 반에 잠이 오지 않아 가는 내내 여행지 관련 TV 프로그램을 보고 책을 보며 공부했다. 드디어 체코 프라하에 도착!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프라하

야경이 유명한 프라하의 까를교를 찾아갔다. 생각보다 동양인이 많았는데 죄다 한국인이었다. 여기가 프라하인지 한국인지 헷갈릴 수준이었다. 프라하가 한국인에게 정말 사랑받는 여행지구나 싶었다. 다음날, 체코의 역사를 공부하며 관광할 수 있는 팁투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체코라는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슬픈 역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자 뭔가 동질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체코에서의 짧은 시간을 뒤로하고 나는 헝가리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탔다.

황홀한 야경의 도시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프라하에 비해 큰 도시라는 느낌이 확 다가왔다. 내가 제일 먼저 가본 '성 이슈트반 대성당'은 거대한 외관도 눈에 띄지만 붉은색과 황금빛이 도는 내부도 굉장히 인상 깊은 곳이었다. 성당에서 나와 부다페스트의 부다지구와 페스트지구를 연결하는 최초의 다리 '세체니 다리'를 건너 부다왕궁으로 향했다. 케이블카를 타고 왕궁의 언덕 위로 올라가 부다페스트의 전경을 보는데,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나뉘어 있는 모습이 마치 우리나라의 한강을 떠올리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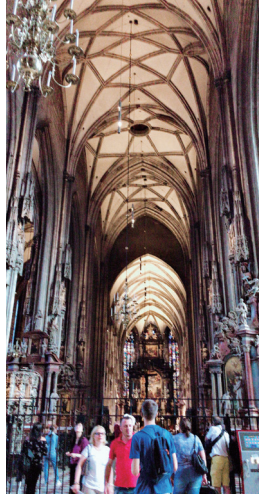
김민영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과



오스트리아 신부른 궁전 전경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의 천장 벽화



오스트리아 슈테판 대성당 내부



헝가리 유람선 야경투어 중 국회의사당 야경

부다왕궁 일대를 둘러본 뒤, 마차시 1세가 결혼식을 올린 곳이자 헝가리의 왕들이 대관식을 한 '마차시 교회'를 거쳐 어부의 요새까지 산책했다. 멋진 야외카페에 앉아 차도 한잔 마시고 나니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세계 3대 야경 중 하나라는 부다페스트의 야경을 볼 생각으로 한껏 기대에 부풀어 투어 배에 올라탔다. 그리고 야경을 목격한 순간, '와, 정말 황홀하다'는 느낌이 내 안에 가득 차다. 그동안 보았던 야경과는 차원이 다른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부다페스트는 야경의 도시라는 말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낭만적인 곳이었다. 나 혼자 이렇게 멋진 야경을 보고 있으니 집에 있는 가족들 생각이 절로 나 그리워졌다. 헝가리에서의 일정을 마무리 한 뒤, 기차를 타고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동하였다.

빈은 부다페스트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가진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였다. 먼저 나는 쇤부른 궁전으로 향했다. 옛날 오스트리아의 황제가 여름 별장으로 사용했다는 쇤부른 궁전은 오스트리아의 화려한 역사처럼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정원에 있는 언덕에 올라 시원한 바람을 맞을 땐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음식은 그 나라의 얼굴

어느 나라를 여행하든지 그 나라의 음식을 꼭 접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세 나라 모두 음식이 다소 짠 경향이 있지만 대체로 한국인의 입맛에 맞을 것 같았다. 개중에 기억에 남는 음식은 체코의 코젤 맥주, 헝가리의 토카이 와인, 오스트리아의 슈니첼이다. 체코는 맥주로 유명한 나라인데 코젤 맥주는 약간 커피향이 나는 것이 맥주와 잘 어우러져 입에 잘 맞았다. 헝가리는 와인이 유명한 나라인데 토카이 와인은 내가 지금껏 먹어본 와인 중에 최고로 맛있는 와인이었다. 오스트리아의 슈니첼은 우리나라의 돈까스 같은 것인데 소스가 없는 돈까스라고 생각하면 맞겠다. 짭짤한 맛이 맥주를 생각나게 한다.

삶의 활력이 되는 시간

여행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일정도 굉장히 빠듯했고, 긴 비행시간에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했다. 지금은 그것도 추억이고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육아와 직장 일로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에게 이번 여행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준 귀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그대가 만약 헝가리에 갈 기회가 생긴다면, 부다페스트의 야경 유람선은 꼭 타보고, 토카이 와인도 맛보라고 권하고 싶다. 🍷



헝가리 어부의 요새에서 바라보는 시내 전경

이상한 날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상한 날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고 싶다.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을씨년스럽고 무서운 바람이 불 때 순식간에 한산해진 거리를 좋아하는 사람. 무지막지 거센 빗줄기를 일부러 시원하게 맞은 후의 뜨거운 목욕이 주는 아늑함을 아는 사람. 맑은 하늘에 푹푹 떨어지는 여우비를 환대하며 싱그러움을 만끽하는 사람.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치면 열 일 제치고 나가서 동그란 눈으로 구경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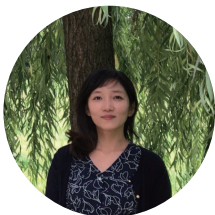
오늘인가요? 네, 오늘입니다

또 어떤 이상한 날씨가 있을까? 우리는 '이상한 날씨'에 대한 항목을 정한 후, 마침내 그날이 오면 저녁에 만나서 보드게임을 하거나 코인 노래방에 가거나 통닭이나 목살이나 순두부를 먹는 일 같은 너무나 일상적인 일을 할 것이다. 이상한 것을 좋아한다고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코스이다. 이 모임의 날씨는 미리 정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이상한 날씨가 찾아왔을 때 단체 특방을 달굴 것이다. 보셨나요? 오늘인가요? 바로 지금인가요? 예,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당장 만납시다.



이상한 날씨의 소중함

이 모임이 시시껍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날씨의 아름다움에 대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도시에서 대자연의 존재감을 스펙터클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적다. 물론 봄이 되어 화원에 새로 핀 예쁜 꽃들과 길가의 가로수들, 움직 거리는 작은 동물들에 눈길을 주는 것 또한 작은 기쁨을 주지만 스펙터클한 대 자연을 느낄 기회가 무에 있겠는가? 그렇다. 이상한 날씨뿐이다. 1년에 한 번씩 아이슬란드의 거대 빙하나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응고롱고로 활화산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자금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고된 여정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서로 낯지시 알다시피 자금이 없다. 그러니 고된 여정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 의외의 날씨가 잠깐 나타났을 때, 이 지구가 왜 이럴까, 새삼 대자연의 일부가 되며 새삼 지구인임을 되새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날씨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슬로보트
북극서점 책방지기



튼튼한 일상, 낯설게 가꾸기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들의 목적지는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행성이다. 특히 추위와 얼음만 가득한 '만' 행성에는 척박한 날씨와 더불어 반복되는 일상, 고독이 있다. 결국 만 행성의 박사는 그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악인이 되어버린다. 우리에게 아주 긴 수명이 주어진다고 해도 오늘 하루가 영원히 반복될 거라는 통지를 받는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형벌이라고 느낄 것이다. 우리의 일상과 감정, 결심과 실패 또한 너무 자주 반복되어서 이상한 날씨라도 만나 관심을 돌리고자 하지만 쉽지 않다. 이상하고 예쁜 날씨는 자주 오지 않는다. 비가 오거나 날이 조금 우중충하면 사소한 일에도 시무룩하고, 맑은 날이어도 태양이 자신을 불사르며 노을 지는 걸 보면 때론 서러워지기도 한다. 이런 섬세한 사람들 같으니.

그러니까 어떤 날씨가 다가오더라도 튼튼한 일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일상을 조금씩은 낯설게 가꾸어가는 것이 좋겠다. 갑자기 프레디 머큐리 분장을 하고 출근하면 가족들이 놀라니까 조금 평범한 것으로. 4월에 제주도 가파도에서 청보리 사이로 자전거 타기. 우리 동네 동물 보호소에 가서 새로운 가족 데려오기. 맛있는 빼에야를 만든 후 친구들 부르기. 그리고…… 되게 조그맣지만 미술 전시도 열리고 이상한 날씨만큼 예쁘게 이상한 책이 가득한 서점에 놀러 갈 수도 있다. 내가 독립서점 주인이라서 하는 말은 절대 절대 아니다.

세상에는 이상하고 오묘한 날씨만큼 우리를 설레게 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 그것이 매번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다시 번뜩 허무함이 찾아올지라도 그 길을 몇 번 걸어본 사람이라면 곧 다시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안 되면? 이상한 날씨를 좋아하는 모임을 만들어보세요. ☀



유영하는 밤

그는 보통 밤 아홉 시 반에서 열 시 사이에 왔다. 아침에도 반듯하게 매지 않았을 듯한 적당히 느슨하게 풀린 타이와 정반대의 정확하게 접힌 커프스, 검지손가락의 도통한 은반지. 사람이 많은 틈 사이에서도 그를 짐작하게 하는 몇 안 되는 것들이었다. 그 짐작을 확신으로 바꾸는 것은 그가 매일 고르는 캔 맥주 하나와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고른 것이 거의 분명해보이는 안주 몇 개였다. 취향을 도통 알 수 없게도 어느 날은 어린이용 칼슘 치즈였다가 어느 날은 와사비 크래커였다. 그리고 보통 편의점 오른쪽의 아파트 단지 쪽으로 걸어갔다. 봉투에 담지 않은 캔 맥주 하나를 마시면서.



이옥수
독립잡지 트램폴린 편집장

십 분 전, 학원을 마친 중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 아이돌 그룹의 사진이 인쇄된 초콜릿 잔뜩 골랐다. 자신이 원하는 아이돌 멤버의 초콜릿이 보이지 않는지 새 것을 꺼내줄 수 없냐는 말에 그녀는 무심히 그게 마지막 상자야, 라고 말했고 아이들은 마지막이라는 말에 아쉬운지 남아있는 초콜릿을 몇 개 집어들었다. 하지만 상자에 같은 얼굴이 인쇄된 초콜릿만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초콜릿을 다음으로 집어든 사람은 그였다. 시계는 정확히 여덟 시였다. 그녀는 시계와 초콜릿, 그를 번갈아보았다.

그리고 하마터면

“오늘 일찍 퇴근하셨네요.”

라고 말을 걸 뻔했다.

그동안 그에게 건넨 말이라곤

“봉투 오십 원인데 드릴까요?”

“칠천팔백 원입니다.”

“할인이나 적립 카드 있으세요?”

“영수증 드릴까요?”

“안녕히 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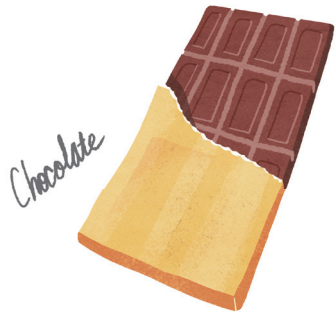
정도가 전부였다. 서로에게 유의미하다고 여길 수 있는 대화는 전혀 없었다. 그는 거의 네, 아니오 정도로 답을 했을 뿐이다. 한 번은 원 플러스 원 제품이니 하나를 더 가져와야 한다고 했을 뿐 때론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다.

“이 초콜릿 원 플러스 원이에요. 하나 더 가져오셔야 해요.”

그는 아, 하는 짧은 감탄사를 내뱉은 후 초콜릿을 하나 더 가져왔다. 그 대화는 그가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녀의 말만을 따로 떼어놓으면 상대는 그가 아니라 누구라도 크게 달라지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그가 초콜릿 하나를 내밀며

“이거 드세요. 저는 하나면 충분해서요.”



라고 말했다. 그가 지금 내민 초콜릿은 그때 그 초콜릿이다.

“천이백 원입니다. 할인이나 적립카드 있으세요?”

라는 그녀의 물음에 그가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뭔가 어색해서 그에게 다시 한 번 말했다.

“봉투 오십 원인데 필요하세요?”

기껏해야 한 뼉 크기도 되지 않는 초콜릿 하나를 사는데 봉투가 왜 필요하겠어,라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이내 그녀는 그의 시선이 자신이 아닌 어깨 너머의 창 밖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후에 내리던 비는 해가 지면서 기온이 더 떨어졌는지 눈이 되어 아주 느리게 내리고 있었다. 평소처럼 라디오를 켜두었다면 디제이가 눈이 온다며 겨울이나 눈 그것도 아니면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 관련 노래를 선곡했을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그녀는 그에게 불쑥 말을 건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눈이 오네요. 온도가 낮아지면 소리의 속도가 늦어진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녀는 속으로 혀를 찼다. 그가 낮아진 온도만큼 느린 말투로 말했다.

“오늘은 원 플러스 원이 아닌가봐요.”

“아, 네. 행사가 지난주에 끝났어요.”

그가 말없이 카드를 내밀었다. 그리고 그녀가 카드를 돌려주자 그가 초콜릿을 그녀에게 밀어주며 말했다.

“이거 드세요.”

그가 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다. 눈송이들이 쌓여 만드는 고요 때문일까. 그녀는 그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어쩐지 앞으로도 계속 그 방향을 알 수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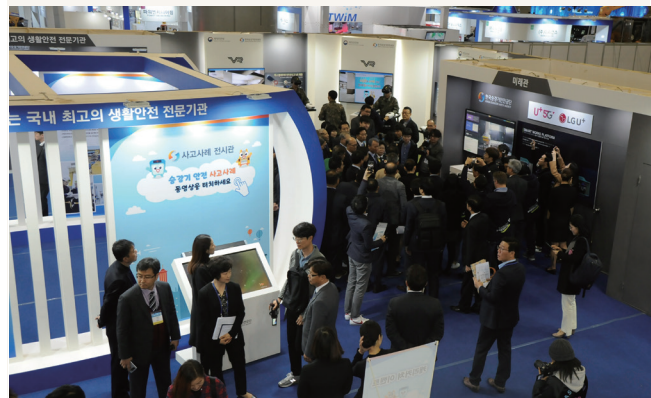
•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감시 국제워크숍 개최(11월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국내·외 기후변화감시 담당자 및 전문가 50여 명이 온실가스 측정 기술, 측정자료 품질 관리 등을 주제로 국제워크숍에 참석했다.



• **2018 기상기후 빅데이터 포럼 개최(11월 9일)**
기상융합서비스 산업의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논의하기 위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포럼'을 개최했다.



•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제학술토론회의 및 국제자문위원회 개최(11월 12~16일)**
기상청과 한수예사업단은 '전 지구 수치예보 시스템 모델링'을 주제로 전 세계의 저명한 전문가들을 초대해 수치예보 분야의 발전과 한국형수치예보모델기술개발에 관하여 토론했다.



• **2018 기상기후산업 박람회 개최(11월 14~16일)**
기상청은 기상산업의 미래 성장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최신 기상기술 동향과 기상기업의 상품이 소개됐다.

| 편집단

Photo News



겨울철 방재기상 업무시작 선언식(11월 15일)

겨울철 위험 기상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자 방재 업무를 점검하고 다짐하는 '2018년 겨울철 방재기상 업무시작 선언식'을 가졌다.



제2차 아시아 지역 영향예보 워크숍 개최(11월 19~21일)

기상청과 세계기상기구(WMO)는 날씨로 인한 위험과 영향을 미리 알려주는 '영향예보'의 운영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와 영향예보 전문가 70여 명을 초빙해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겨울철 전망 언론 브리핑(11월 23일)

출입 언론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기상 전망과 방재 기상 대책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기상청 다울관에서 시행했다.



천리안 위성 2A호 발사(12월 5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상 관측 탑재체를 갖춘 천리안 위성 2A호가 국내 시각 12월 5일 05시 37분경 남아메리카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천리안 위성 2A호는 정지궤도에 안착한 후 약 6개월간 시험 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기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독자마당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머리 좀 식히면 어떨까요? 「하늘사랑」도 읽고, 상품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퀴즈 참여 방법

퀴즈 정답은 12월 25일까지 전자우편 (kmanews@korea.kr)으로 구독 소감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기고 방법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아래한글 10point, 줄 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 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이나 원고료를 드립니다.

한 단어? 한 문장!

제시한 단어에 대한 의미를 참신한 생각으로 뽑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1월호의 단어는 <미래>입니다.

지난달 우수한 한 문장! <음악>

강현숙 시흥
소리로 만들어내는 힐링

변순옥 전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것

이갑수 전남
오션지 위에 피어난 인생

심재호 울산
삶에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청량제

김남숙 전주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오랜 친구

QUIZ

지난달 퀴즈 정답

지난달 퀴즈 정답자

1. 기상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판로 개척을 위해 기상청이 주최하는 행사 이름은?

- ① 기상산업 박람회 ② 기상기후산업 박람회
- ③ 기후산업 전시회 ④ 기상기후산업 전시회

- 1. ② 오로라
- 2. ② 지구온난화 1.5℃

이대연(동해), 이춘임(포천),
이재훈(시흥), 김지윤(양산),
김태원(서울)

2. 보리가 주원료인 알코올음료로, 옛기름가루를 물과 함께 가열하여 당화한 후 흡을 넣은 발효주의 이름은?

- ① 청주 ② 소주 ③ 맥주 ④ 탁주

인사

| 내용 | 일자 | 소속 | 직급(직위) | 성명 | |
|---------|------------------------|---------|--------------------|-------|-----|
| 복직 | '18.11.13. | 관측기반국 | 정보통신기술과 | 기술서기관 | 홍성대 |
| 승진 | '18.11.19. | 항공기상청 | 관측예보과 | 기상사무관 | 안기창 |
| 파견 (연장) | '18.11.19.~'19.11.18. | 행정안전부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기상사무관 | 강경운 |
| 파견 | '18.11.19.~'19.11.18. | 행정안전부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기상사무관 | 김동진 |
| 파견 복귀 | '18.11.19. | 강원지방기상청 | 관측과 | 기상사무관 | 박창수 |
| 복직 | '18.11.24. | 전주기상지청 | 관측예보과 | 기상사무관 | 윤종필 |
| 복직 | '18.12. 1. | 예보국 | 예보생산체계 전문화를 위한 TFT | 기상사무관 | 김태훈 |
| 임명 | '18.12. 3.~'21. 3. 29. | 기획조정관실 | 혁신행정담당관실 | 행정사무관 | 남지은 |

시끌벅적 하늘사랑

이춘임 포천

그동안 각종 매스컴을 통해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에 대해 수없이 들어 왔으나, 정작 그 심각성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하늘사랑 11월호에 특집으로 실린 제48차 IPCC 총회 개최 소식을 통해 '지구온난화 1.5°C'의 중요한 의미와 가치, 온난화의 위험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IPCC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어 더 뜻깊은 만큼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가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세계 모든 국가들의 바이블로 활용되어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정책 운영, 신에너지 활성화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갑수 전남

세탁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특히 겨울철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살림살이인 것 같습니다. 온도와 습도에 따라 세탁 방법과 건조 시간이 다르고, 섬유의 종류와 얼룩의 원인에 따라 세제 사용도 달라져야 하니 웬만한 살림꾼이 아니면 수월한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지난 호 <옷 세탁하기 어려운 겨울, 소재별 세탁 방법>을 꼭 기억해 뒤서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남숙 전주

<겨울철 건강 관리법>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3남매 다둥이 가족이라 겨울만 되면 가족들이 감기가 끊이지 않아 늘 걱정이거든요. 겨울철 건강 관리의 기본은 난방으로 인해 건조해진 공기를 자주 환기 시키고, 물을 자주 마셔주는 등의 사소한 실천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걸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사랑 구독자분들도 올 겨울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진 : 박정은, <얼음꽃 결정>, 2018 기상기후사진전 스토리사진상 / 글 : 조희애

얼음꽃

북극에서 온 그 손님은
호기심이 많더군요

허허, 저건 뭘까
흠흠, 이건 뭐지

괜히 기침 한 번 하면서
손가락으로 쿡 찌러보더군요

아무도 못 봤겠지?
입 가리고 후후 웃어도

우리는 알지요
겨울이 무엇을 만졌는지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전월세를 지원하고 낡은 집은 고쳐드립니다.



지원대상 소득재산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소득인정액 | 72 | 122 | 158 | 194 | 230 | 266 |

(단위: 만원 / 월, 2018년 기준)

※ 신청자 명의의 자동차는 소득인정액 월 100%반영(단, 장애인사용자동차 제외)
(예: 보험개발원 자동차 평가기준 가액이 200만원인 자동차 소유자는 200만원을 소득인정액으로 반영)

신청인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5. 통장사본

※ 필요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신분증 지참
※ 보장가구 확정,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지원내용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 기준 임대료(2018)] (원/월)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 | 4급지 (그외 지역) |
|----|-------------|----------------|------------------|----------------|
| 1인 | 213,000 | 187,000 | 153,000 | 140,000 |
| 2인 | 245,000 | 210,000 | 166,000 | 152,000 |
| 3인 | 290,000 | 254,000 | 198,000 | 184,000 |
| 4인 | 335,000 | 297,000 | 231,000 | 208,000 |
| 5인 | 346,000 | 308,000 | 242,000 | 218,000 |
| 6인 | 403,000 | 364,000 | 276,000 | 252,000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증가(1월 단위 절상)

※ 신청자의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임차료 지급내용 영수증)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지원금액 (주기) | 378만원 (3년) | 702만원 (5년) | 1,026만원 (7년) |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3%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 ※ 장애인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설치(380만원 한도)

♿ ※ 고령자(만 65세 이상)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설치 (50만원 한도, '19년 1월 시행)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포털에서 마이홈을 검색하고 주거급여 자가진단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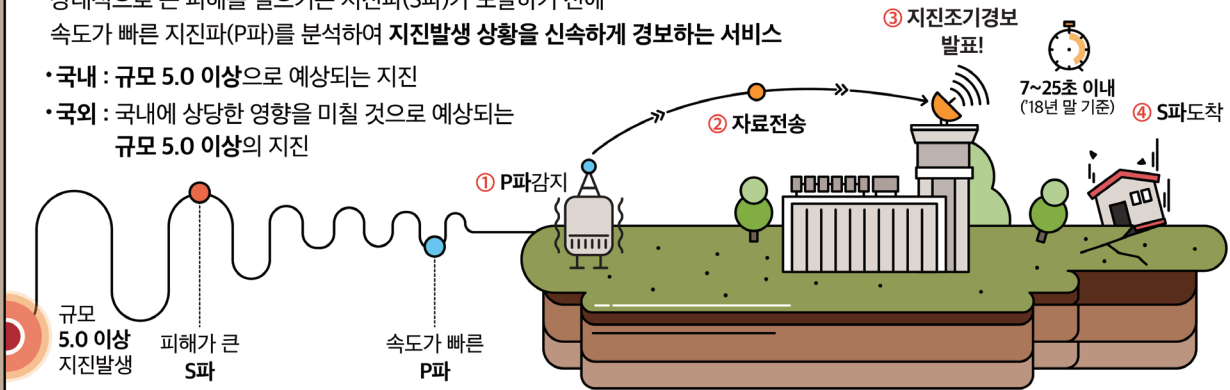
지진조기경보? 지진재난문자? 같다? 다르다!

‘지진조기경보’와 ‘지진재난문자’는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진조기경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일으키는 지진파(S파)가 도달하기 전에
속도가 빠른 지진파(P파)를 분석하여 지진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경보하는 서비스

- 국내 :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
- 국외 :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



통보 내용



발생 시간



추정 위치



추정 규모



예상 진도

지진조기경보 전달매체

기상청 홈페이지



TV



지진재난문자



131ARS



라디오



모바일메신저



안전디딤돌앱



지진재난문자

지진정보 수신 방법 중 하나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규모에 따라 대상영역(광역시·도 단위)을 구분하여 발송



3.0~3.5 미만

3.5~4.0 미만

지진발생위치 반경 35km
광역시·도



3.5~4.0 미만

4.0~4.5 미만

지진발생위치 반경 50km
광역시·도



4.0 이상

4.5 이상

전국발송

규모

내륙

해역

대상영역

